



공간과 어우러진 예술... 신작을 만나는 즐거움

제 14회 광주비엔날레, 참여 작가·전시작 최종 발표
 다양한 장르 79명 작가 참여... 신작 40여편 제작
 한강 소설 '흰' 모티브 영상·환경문제 환기 로봇 눈길

한강의 소설 '흰'을 모티브로 한 영상 작품, 아마존의 광활한 풍경, 환경문제를 환기시키는 로봇. 미술축제의 즐거움 중 하나는 신작을 만나는 일이다. 오는 4월 개막하는 제14회 광주비엔날레에서는 40여점의 신규 커미션과 신작이 나온다. 또 전시공간이 무작사 등 광주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각각의 '공간'과 어우러진 작품들도 대거 출품돼 눈길을 끈다.

(재)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 박양우)가 6일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최종 참여작가 명단과 전시작들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1차에 이어 이번엔 발표된 참여 작가에는 헤라 뷔옥타쉬즈안, 에드가 칼렐, 구철우, 홍이현숙, 정재철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전체 참여작가는 모두 79명(팀)이다.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soft and weak like water)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비엔날레는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국립광주박물관, 무작사,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예술공간 집 등 5개 전시공간에서 오는 4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94일 간 펼쳐진다.

만지는 것-월출산 시루봉(What You Are Touching Now? Wolchulsan Sirubong)'은 영암 월출산 압맥을 등반하는 작가의 여정을 기록한 작품이다. 베를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 앤 덕희 조던은 인터랙티브 로봇 연작과 물입형 설치 작업을 융합한 '안녕하, 그리고 물고기는 고마웠어요(So long, and thank you for all the fish)'를 제작했으며 과테말라 카치켈족 작가 에드가 칼렐은 할머니와 함께 살던 집의 기억을 추적하는 드로잉을 통해 마야 원주민 문화를 탐구한다.

#무작사 등 광주 전역에서 만나는 작품
 전시장이 확대되면서 각각 선정된 장소들의 독특한 건축, 역사, 문화적 맥락에 조응하는 작품들이 관람객들을 찾아간다.

광주비엔날레와 뉴욕 카날 프로젝트의 공동 커미션으로 제작된 캔디스 린의 작품은 한국의 전통 분청사기 기법에서 영감을 얻은 도자 조각과 공장 작업대,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시공간인 국립광주박물관의 도자기 소장품과 함께 선보인다. 또 박물관 정원에서는 캄보디아 작가 소뎀 핏가가 알루미늄 집기를 재활용해 백일홍 형상을 만들어낸 조각 연작 '춤(La Danse)'이 전시된다.

양림산 기슭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에서는 아마존 지역 풍경에 대한 회화적 해석을 담은 비비안 수어의 연작을 비롯해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탐색한 정재철의 작품을 만난다. 모리 유코 작가가 소설가 한강의 작품 '흰'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장소 특정적 사운드 설치 'I/O' (2011-2023)도 눈길을 끈다. '흰'은 더럽혀지지 않는 '어떤 흰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른 책으로 한 편의 소설이자, 각각의 '흰 것'을 다룬 65편의 시로도 읽힌다.

도심 사찰 무작사에서는 삶의 순환에 대해 고찰하는 명상적 작업이 전시된다. 다이나타 심의 영상 '모나와 나(Mona and Myself)'는 작가가 사진기자로 활동할 당시 만난 모나 아메드와 한평생 이어오던 우정과 동

료를 그리고 있다. 중국 도자 전통을 재해석하는 류젠화의 작업 '속고의 공간(Realm of Reflection)', 베트남 전쟁으로 프랑스에 정착한 흐영 도딘의 추상 회화도 눈길을 끈다.

예술공간 집에서는 아내를 잃은 한 남자가 사랑과 상실에 대해 반추하는 모습을 그리는 나임 모하이멘의 영상 작업 '익사하지 않는 사람들(Jole Dobe Na)'이 상영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에드가 칼렐 '여기 당신이 우리마음에 숨어 놓은 요정들이 있어요' ©조 클라크



앙헬리카 세레 '내 두 번째 피부에 말씨를 뿌리다' ©후안 카를로스 멘코스



차이지웨이 '나선형 향 만트라-반야심경' ©스티브 형

'이강하 : 또 다른 세계'

3월 23일까지 이강하 미술관... '脈 맥' 연작 등 13점 전시

지난 2018년 광주시 남구 양림동에 문을 연 이강하 미술관은 '우주와 미술관' 등 다양한 주제로 펼쳐지는 기획전시와 더불어는 공간이다. 올해는 지난 2018년에 이어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프로젝트 전시 공간으로 확정돼 캐나다 작가들과의 협업을 진행한다.

이강하미술관은 양림동 출신으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한 고(故) 이강하(1953-2008) 화백의 이름을 딴 미술관으로 1년에 한 차례씩은 이강하 작가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그의 작품만을 전시할 때도 있고, 현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작가들이 재해석한 작품을 함께 전시하기도 한다. 지역 작가의 과거작품을 통해 '과거-현재-미래의 시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전시회'를 구현하고픈 마음에서다.

오는 3월 23일까지 열리는 '이강하 : 또 다른 세계' 전에서는 이 작가의 1980년-90년대 대표 작품 '脈 맥' 연작을 만날 수 있다. 이미 알려진 '맥' 작품과 더불어 한번도 소개되지 않았던 그림을 포함해 모두 13점을

선보인다.

1970년대부터 남도사람들의 애환과 한국미술의 정체성을 작업의 주제로 삼았던 그는 조선대 미술대학에 입학해 탐구를 이어갔다. 1980년 5월 학생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하고, 2년간 지명수배자가 돼 전국의 사찰에서 은둔 생활을 하던 그는 현실과 역사적 경험 사이에서 '무엇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라는 고민을 이어갔다.

'맥' 연작은 이 때 탄생한 작품이다. 당시 마주했던 자연풍경과 사찰의 전통 단청무늬, 남도 오방색은 작가의 지친 심신을 치유했고, 자유와 평화를 상상하게 했고, 또 다른 세계로 연결하는 새로운 사상적 통로가 됐다. 불교와 샤머니즘에 관심을 갖고 전통적 민족정서 역사, 사상에 대한 근본을 찾고자 하는 연구가 이어지며 '맥' 연작을 완성해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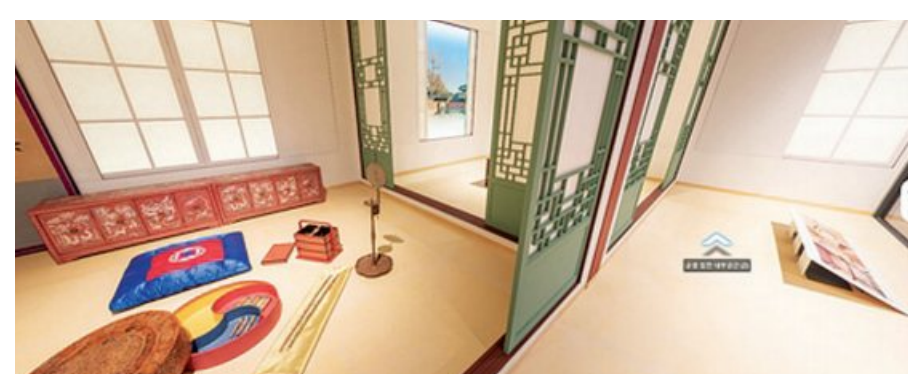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발'은 우리민족 전통의 '감춤'의 미학'과 '신비스러운 시각 효과'를 구현한다. '발' 뒤에 불상이나 사천왕, 탈, 인물 등을 섬세하게 그려



'맥'

극사실적 효과를 내면서 '발'을 통해 감추어진 전통문화와 사상을 은유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하루 두차례(네이버 및 전화예약제) 도슨트를 운영한다. 문의 062-674-851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왕실유물 800여 점 온라인으로 만나요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온라인 박물관' 개관

조선의 궁궐을 비롯해 국왕실, 왕실의 생활실 등을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박물관이 개관했다. <사진>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상설 전시실의 왕실유물 800여 점을 온라인상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박물관'을 열었다.

유물들은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대한제국실, 궁중 서화실, 왕실 의례실, 과학문화실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온라인 박물관은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해 가상현실(VR)로 재현했으며 소장 유물들을 사진(JPG), 음성 해설(MP3), 동영상(MP4), 전시정보(PDF) 등 다양한 콘텐츠로 감상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전시된 소장품의 고화질 사진 자료는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음성 해설 파일에는 국문 자막이 함께 제공된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국립고궁박물관의 주요 소장품인 '의궤'의 유물번호와 연대 등 정보를 알 수 있는 '서지', 책의 내용과 체제 등을 설명한 '해제', 원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원문 정보'도 같이 공개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GSO오티움 콘서트 '러시아 음악의 기원'

광주시향, 3월3일 ACC 예술극장 극장2

광주시립교향악단이 2023년 첫 'GSO 오티움 콘서트'를 연다.

'GSO 오티움 콘서트' 시리즈는 클래식 음악을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음악회로, 올해는 총 다섯번의 콘서트로 관객들과 만난다.

올해 첫 공연은 '러시아 음악의 기원'을 주제로 3월 3일 오전 11시와 오후 7시 30분 두차례에 걸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2에서 열린다.

이날 협연자로는 통영국제음악콩쿠르 입상자 첼리스트 김덕용이 함께한다. 광주시향은 통영국제음악재단 협력사업으로 매년 통영국제음악콩쿠르 입상자를 초청해 협연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지휘와 해설은 김

영인 광주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가 맡는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무소르그스키의 교향시 '민중들의 하룻밤'과 차이콥스키의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보로딘의 '폴로베츠인의 춤'을 감상할 수 있다.

'러시아 5인조' 작곡가인 무소르그스키와 보로딘은 각각 장교와 화학자로 정식 아카데미 교육을 받지 않은 일종의 '딜레탕트' 작곡가다. 이들은 러시아 음악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중시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러시아 국민음악의 시조로 알려진 글린카로부터 시작되는 러시아 국민악과 러시아 5인조, 차이콥스키의 음악을 해설과 함께 감상해 볼 수 있다.



첼리스트 김덕용

무대를 가졌다.

공연은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와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S석 2만 원, A석 1만 원.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광주문예회관, 시민기자단 15일까지 모집

광주문예회관이 제1기 시민기자단을 모집한다.

시민들에게 문화소식을 알리기 위해 애초 서포터즈 형태로 진행돼 왔지만 올해부터는 보다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민기자단을 꾸려졌다. 시민기자단은 문예회관의 공식 온라인 채널에 공연 정보를 취재해 알리고 문화 소식을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선발된 시민기자단 활동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진행되며 주로 문예회관의 SNS(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를 통해 시민과 소통할 계획이다. 활동 기간동안 1인당 1건 이상의 게시글을 작성해 올려야 하며 무료 공연 관람 기회와 연말에는 우수 기자 시상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기자단 모집은 15일까지이며 모집 분야는 글·사진, 영상 2개로, 10명 이내의 인원을 선정한 계획이다. 연령과 성별, 직업에는 제한이 없다.

개별 면접은 없으나 글·사진의 경우 문예회관 및 시립예술단체와 관련한 글을 자유로운 주제로 1건 작성해 지원서 내 링크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영상 역시 지원서와 함께 본인이 촬영·편집한 영상을 2개 이상 제출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는 23일 발표한다. 문의 062-613-8233.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